

입중 오법

대중과 같이 살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入衆五法

첫째가 하심下心으로 남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 자기과시를 하지 않는 일이다.

둘째는 자심慈心으로 자비심에 입각해 매사를 보살피며 남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셋째는 공경恭敬으로 서로 예를 갖추어 교양 있는 태도로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해야 한다.

넷째는 지차제知次第로 일의 순서와 법도를 바로 알아 주체 넘거나 분수에 넘치는 행동이 나와서는 안된다.

다섯째는 불설여사不說餘事로 필요 없는 말을 삼가고 도심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